

복부초음파상 지방간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지방간과 혈청 Aminotransferase 상승과의 연관성

엄경호, 박종범, 송재순, 박주성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연구배경: 종종 복부초음파상 지방간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우연히 혈청 Aminotransferase가 상승된 경우가 있는데 일부에서 이를 잘못해석하고 잘못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지방간과 혈청 Aminotransferase 상승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지방간 환자관리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방법: 2001.7월부터 2002.7월까지 동아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 복부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428명(남자 206명, 여자 222명)을 환자군으로 하고 이와 연령이 유사하고 복부초음파 검사상 정상소견을 보이는 298명(남자 152명, 여자 146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바이러스성 간염 및 독성 간염 환자는 제외시켰다. 각 연구 대상자마다 병력청취와 영양평가를 시행하였고 체질량 지수를 측정하였다. 혈압측정과 검사실 검사로 12시간 금식 후 공복상태에서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변수의 특성에 따라 student t-test, χ^2 test,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결과: 평균연령은 남자에서 환자군 대조군 모두 46세였고 여자에서 환자군은 52세 대조군은 43세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결과 체질량 지수 25이상인 비만군에서 지방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P < 0.0001$), 혈당 110이상군에서 지방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P < 0.05$), 혈중중성지방 200 이상 지방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P < 0.001$), 성별에서 여성이 지방간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P < 0.01$). 반면 혈청 Aminotransferase 치는 지방간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P > 0.05$).

결론: 복부 초음파상 지방간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지방간과 혈청 Aminotransferase 상승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중심단어: 복부초음파, 지방간, 혈청 Aminotransferase